

ALA 2004년도 연차총회 전시회에 처음 참가

박경아 한국도서관협회 기획·홍보팀장

kapark@dreamwiz.com

우리 협회는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도서관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4년도 연차총회(Annual Conference, 6/24-30, Orlando, Florida) 전시회에 협회 홍보 부스를 개설하였다 [관계기사 본지 5월호 9쪽 참조].

우리 협회의 이번 ALA 전시회 부스 개설은 IFLA2006서울대회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전시회 일정(6/26-29) 4일간 약 2천5백여 명이 우리 부스를 방문하였다. 특히 협회 사무국 직원 김도미 국제팀장, 박경아 기획팀장 이외에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소속 직원들도 함께 홍보활동에 참여하였다.

ALA 전시회 참가 경험이 없었던 우리들로서는 우리 부스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한적한 위치에 있으며 별다른 인테리어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시회 개막 전까지는 걱정을 많이 했다. 특히 우리가 예상했던 기본 부스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달라 많이 당황하였다. 하지만 예상외로 많은 참가자들이 우리 부스를 찾아 주었고, 4개 기관이 준비한 자료와 홍보 판촉물 등이 모두 소진되었다.



우리 부스에 방문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과거에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미국인 사서와 재미 한인 사서들이었다.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자체가 생소한 미국인 사서들에게 IFLA2006서울대회를 알리는 일이 버거운 일이었지만 먼 길을 달려온 우리에게 놀라움을 표시하며 IFLA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한국의 도서관 사정을 묻는 참관자들을 보며 홍보의 효과를 느꼈다.

이번 부스 개설은 IFLA 사무국 관계자, IFLA 분과 활동 위원 등에게 한국조직위원회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도 되었으며, 특히 미국 내 한인 사서들의 IFLA 대회 참가를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일이 부스를 찾아다니며 홍보를 하고, 다국적 도서관협회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과도 면담한




〈IFLA 세션에서 서울대회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



〈ALA 주요인사와의 기념촬영〉

결과 업체 관계자들이 우리 부스를 방문하여 IFLA 대회 전시회에 관심을 보이는 성과도 얻었다.

다만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전시 부스 활동 이외의 모임에는 활발히 참여하기가 힘들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에는 “IFLA 대회 홍보 세션”과 “ALA 차기 회장 및 주요 인사와의 면담 (Innovative社 주최)” 정도만 참가하였는데, 특히 “IFLA 대회 홍보 세션”은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2005년도에는 충분히 대비하여 참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국내 참여 기관간의 정확한 역할분담, 부스 운영 전문 인력의 확충, 좋은 부스 위치 확보, IFLA2006서울대회 준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IFLA2006서울대회를 계기로 한국 방문을 계획할 가능성이 많은 재미 한인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 마련 등도 미진했던 부분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는 누구를 홍보 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각각의 대상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둘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IFLA2006서울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도 ALA 연차총회(시카고, 6/23-29)에서는 금년 보다 세련된 부스 활동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6월 25일(금) Innovative社가 주선한 ALA 차기 회장인 마이클 고먼(Michael Gorman)과의 면담 자리에서 회장 임기 중 무엇에 역점을 두고 싶은지 물었다. 답변은 다음과 같다.

① 도서관학과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과의 괴리를 좁히고 싶다. 도서관학 교수 중에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드물다. 강의 내용이 대단히 비현실적이며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한다. 학계와 현장이 같이 커리큘럼을 짜야하며, 현장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조언해 주어야 한다. 정식 근무 전에 현장 실습이 가능하도록 Pre-scholarship 제도 등을 도입하면 좋겠다.

② ALA 산하 협의회 중에 American Professional Association이라는 것이 있다. 이 분과 활동을 통해 사서의 권익 신장, 보수 조정, 사서자격 제도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③ “다양성(Diversity)”이 존중되는 사회로 만들고 싶다. 예를 들면 스페인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도서관에 스페인어 가능한 사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인종이 골고루 사는 곳이다. 인종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